

배포 일시	2022. 11. 14.(월)		
담당 부서	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	책임자	과 장 문석준 (044-201-4284)
		담당자	사무관 원정윤 (044-201-4285)
			주무관 김은혜 (044-201-4292)
보도일시	2022년 11월 1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14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美FAA-아태지역 국가 간 항공안전 협력회의 개최

- 3년만의 대면 회의, UAM 新기술 인증, 항공산업 회복방안 등 논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미국 연방항공청(FAA)과 공동으로 『제23회 FAA-아태지역 국가 간 항공안전 협력회의』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이 회의는 미국과 항공안전협정(BASA,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)을 체결한 아태지역 국가의 항공당국 및 산업계 전문가가 모여 항공기 인증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서,
 - * '98년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개최, 이후 매년 FAA가 주최하고 아태지역 국가가 주관하여 순차적으로 회의를 개최 중이며, 우리나라는 '10년 이후 12년 만에 개최
 - 특히, 이번에는 코로나-19 영향으로 3년 만에 대면회의로 진행하며 “아태지역의 안전 및 회복을 위한 연계성 강화”*를 주제로 아태지역 11개** 국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안전들을 논의할 계획이다.
 - * “Strengthening Connection for Safety and Resiliency in the Asia-Pacific Region”
 - ** 참가국(11개국) : 한국, 미국, 뉴질랜드, 대만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인도, 일본, 중국, 호주, 홍콩
- 15일·16일 양일간 열리는 항공당국자 간 회의에서는 코로나-19 회복 방안을 비롯하여, 5G 전파 안전성 관련 진행사항, UAM 및 무인기 인증, 초음속 항공기 개발 등을 공유·논의하고, 우리나라는 ‘K-UAM 그랜드 챌린지’를 소개할 예정이다.

* (K-UAM 그랜드챌린지) UAM 상용화 이전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개념(Concept of Operation) 및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해보는 대규모 실증사업('22~'24)

□ 17일 열리는 항공 산업계 회의에서는 현대·한화시스템·SK텔레콤과 美 조비 에비에이션이 UAM 사업현황과 계획 등을 소개하고, “아태지역의 UAM 비전”을 주제로 하는 패널 토의도 진행할 계획이다.

○ 이 밖에도,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, 대한항공, 보잉, 국제항공운송협회 (IATA) 등이 참여하여 항공기 제작환경, 항공산업의 회복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“이번 회의는 우리 생활을 바꿀 UAM 등 차세대 항공산업과 항공안전 시스템의 발전상을 전망하고,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”라면서,

○ “이번 회의를 계기로 UAM의 국내 상용화를 대비해 관련 제도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, 아태지역 국가 간의 항공안전 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힐 예정이다.

참고**제23회 FAA-아태지역 국가 간 항공안전 협력회의**

□ (명칭) 제23회 FAA-아태지역 국가 간 항공안전 협력회의

* 23rd FAA/Asia-Pacific Bilateral Partners Dialogue Meeting

□ (시간·장소) '22.11.15(화)~11.17(목), 서울 신라호텔

□ (참석자) 국토부, FAA, 아태지역 국가 항공 인증담당 국·과장 및 산업계 대표 등 70여명

* 참가국(11개국) : 한국, 미국, 뉴질랜드, 대만,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인도, 일본, 중국, 호주, 홍콩

□ (주최·방식) FAA-국토부 공동 주최, 하이브리드(대면, 영상회의 병행)

□ 행사 주요 일정

일 정	주 요 내 용
11.15(화) ~ 11.16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개회식 ▶ 환영사(항공정책실장, FAA 인증국장) ▶ 안건 발표 및 논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태지역 파트너십 성과 - 미국의 5G 진행사항 - 참가국별 규제·정책 소개 - 코로나 등 팬데믹 이후 회복방안
항공 당국자 간 회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안건 발표 및 논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아태지역 작업그룹(무인기 인증, UAM, 지속운영안전, 감독전략)별 진행사항 - 싱글 파일럿 운영 및 초음속 비행 - 급변하는 환경 기반의 안전관리시스템 - 'K-UAM 그랜드챌린지' 소개(한국)
11.17(목) 항공산업계 회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안건 발표 및 논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UAM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소개 (현대, 한화시스템, SK텔레콤, 미국 JOBY Aviation(조비에비에이션)) - 항공기 제작분야 다변화(KAI) -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 얻은 교훈(보잉, IATA, 대한항공) ▶ 패널토론(아태지역 UAM 비전) ▶ 폐회식